

예술은 질문-광주의 비판의식을 말하다

특별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는 늘 질문하는 도시였다. 억압에 침묵하지 않고, 예술로 저항하고 회복해 온 도시다. 시민들은 말 대신 노래하고, 그림으로 외치며, 연극으로 진실을 표현해왔다. 그런 비판의식은 단순한 불만이나 반대가 아니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감수성이다.

즐기는 도시 아닌 생각하는 도시

광주의 거리와 광장은 언제나 살아 있는 무대였다. 5월의 금남로, 도청 앞 광장, 광주공원까지, 시민들의 외침은 예술이 되었다. 벽화와 시, 노래와 연극 속에 시민들의 진심이 담겼다. 표현하는 일은 광주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었다.

광주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 있다. 비엔날레, 프린지페스티벌, ACC의 실험적인 공연들, 청춘문화누리터의 거리공연, 5월의 민주주의 대축제까지. 이 모든 활동은 시민의 질문을 예술로 바꾼 결과다.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이자, '깨어 있는 감수성'의 도시다.

광주의 문화예술은 늘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거대한 외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용히

묻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잘살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인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이 도시는 표현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여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책임의 회피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광주의 예술은 늘 살아 있었다. 고요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술은 이 도시에서 단순한 장식이나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의 감정이며, 시대의 기록이고, 공동체의 양심이었다.

하지만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비판에 지쳐가고 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 “괜히 나섰다가 손해 본다”는 냉소가 일상적인 언어가 되고 있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면, ‘예민하다’, ‘유난스럽다’는 반응이 먼저 돌아온다. 이런 시대 일수록 예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예술은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늘 타인을 향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예술은 사람을 멈춰 세우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문화도시란 ‘즐기는 도시’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시’여야 한다. 표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이는 기후 위기를 약기로 표현하고, 어떤 이는 여성의 삶을 판소리로 풀어낸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의 기억을 퍼포먼스로 되살린다. 이 모든 작업은 질문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꾸며내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고, 말하고, 같이 보자는 행위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문화는 곧 정치이며, 예술은 곧 도시계획이다. 행정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감수성이고,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태도다. 문화는 삶의 방식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언어다. 그렇기에 문화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지키는 일이다. 문화예술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국가의 자존을 드러내는 선언이다.

그 가운데 특히 5월은 광주의 시간이다. 단지 추모를 위한 달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시간이다. 예술은 이 질문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응답해왔다. 시민들은 ‘기억의 언어’를 찾았고, 무용수는 그날의 몸짓을 복원했으며, 음악가들은 진실을 멜로디에 담았다. 예술은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다.

나는 때때로 이른 아침, 미디어아트 플랫폼 앞 벤치에 앉아 생각한다. 도시는 정말 변했는가? 사람들의 말투는 달라졌고, 건물은 새로 들어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치가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삶도 함께 바뀌었는가?

함께 묻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그 질문은 예술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행정도, 시민도, 기업도 함께 답을 고민해야 한다. 예술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외치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 문화 공동체는 함께 묻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업은 메세나로 응답하고, 행정은 따뜻한 눈으로 예술을 바라보아야 하며, 정치는 문화의 문법으로 권력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예술 생태계다.

광주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다. 깨어 있는 감수성의 도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예술로 말하는 도시. 이런 도시야말로 진짜 문화도시다. 예쁜 조형물이나 일회성 관광 콘텐츠가 아니라, 공동체가 사유하고 토론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 생태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미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는다. 지금, 이 도시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술은 그 물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광주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질문은 지금,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뜨거운 5월에 예술 도시의 미래를 그려본다.

AI 시대 소상공인, 디지털을 사고(思考)하다

든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경영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과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소핑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 897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온라인 소핑이 가진 편리성과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매출 실적이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11.4%에 그쳤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은 15.4%,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소상공인도 카멜레온처럼 달라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변해버린 환경을 거스르거나 피할 방법은 없으니 말이다. 이에 북구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거점인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신안

동 태봉생활체육관 2·3층에 연내 조성될 지원센터는 온라인 미디어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고 시장 매니저가 디지털 전환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및 ‘복소몰(복구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기존 소상공인들의 약점으로 꼽히던 공간·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별 업종, 매출, 규모 등 각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온라인 통합 접수를 가능하게 해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시스템을 운영하며 누적된 데이터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제감도 높은 시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번 맞춤형 지원사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라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작아지는 소상공인(小商人)이 아니라 그 물결에 올라타 웃을 수 있는 소상공인(笑商人)으로 가득한 북구를 그려본다.

사설

해남이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다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탄지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세하면서 대선 후보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다소 뜸금없는 공방의 대략은 이재명 후보가 ‘해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공약 설명 자료를 통해 부산이 최적지라고 밝히면서다. 이준석 후보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제철소-고속도로는 데이터센터인데 물·전기·케이블 등 3대 요소를 다 갖춘 부산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남에는 해저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다.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표준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저 전력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술발전과 분산형 전원구조를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비판에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 간 생뚱맞은 ‘친중론’ 논쟁까지 벌어졌다. 전형적인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 그것도 대규모 사업

을 결정하는 데는 정치가 아니라 타당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해남이 최적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가 차고 넘친다.

전남도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해남은 국내 최대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 등 기후 조건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넓은 부지와 산업용수까지 갖추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 또 지난 2월 말께는 전남도와 해남군, 그리고 미국 투자사와 국내 최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시행사 간 15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이뿐만 아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으며 조성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는 데이터센터 조성부지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다. 탈탄소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끝났고,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운 마당에 일부 대선 후보들이 이제와 느닷없이 탄지를 거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남도와 지역민은 데이터센터 구축 최적지가 해남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의 공약을 지지한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금호타이어 위기 극복 국가 협력 절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발 벗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화재는 법에 규정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이란 게 이 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한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임직원 2,200여 명과 공장내 직원 인력, 여기에 협력업체 인원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화재 진화 투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만큼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 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으로 당분간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근로자와 회사 측을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역시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를 수습하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측이 가장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역 사회와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화재 사고의 악재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사진 속 세상



꽃으로 가득 찬 서울스카이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당대 서울스카이에서 모델들이 플라워 체형형 공간 ‘블루밍 유니버스: 빅 플라워’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편집국장 박간재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